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514

2008年 8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서사문학에 관한 연구

- 단원 구성 및 학습 자료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大 淵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서사문학에 관한 연구

- 단원 구성 및 학습 자료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pic Literature in the Sino-Korean Textbooks of High School : focused on the composition of unit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reading materials

2008년 8월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大 淵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서사문학에 관한 연구

指 導 敎 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4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大　　淵

李大淵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2008年 6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 1
2. 연구 방향 ····· 5

Ⅱ. 서사문학의 개념과 교육목표 ····· 9
1. 서사문학의 개념 ····· 9
2. 교육과정에 명시된 서사문학 교육의 목표 ····· 13

Ⅲ. 교과서별 서사문학 비중과 단원구성 비교 ····· 18
1. 서사문학의 비중 ····· 18
2. 서사문학의 대단원 구성 ····· 27

Ⅳ. 소단원에 제시된 지문 및 학습 자료의 구성 비교 ····· 34

Ⅴ. 결론 ····· 54

參考文獻 ····· 57

表 目 次

<표 1>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0種 및 한문고전교과서 1種 목록 ····· 8
<표 2> 한문과 한문영역 내용 체계표 ····· 13
<표 3> 한문고전 한문영역 내용 체계표 ····· 14
<표 4> <교학>의 서사문학 비중 ····· 18
<표 5> <금성>의 서사문학 비중 ····· 19
<표 6> <대학>의 서사문학 비중 ····· 20
<표 7> <대한>의 서사문학 비중 ····· 21
<표 8> <두산>의 서사문학 비중 ····· 21
<표 9> <새한>의 서사문학 비중 ····· 22
<표 10> <정진>의 서사문학 비중 ····· 23
<표 11> <중앙>의 서사문학 비중 ····· 23
<표 12> <지학>의 서사문학 비중 ····· 24
<표 13> <천재>의 서사문학 비중 ····· 25
<표 14> <한문고전>의 서사문학 비중 ····· 25
<표 15> 서사문학을 대단원으로 설정한 교과서 ····· 27
<표 16> 서사문학을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다른 대단원에서도 주제별로 다룬 교과서 ····· 29
<표 17>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지 않은 교과서 ····· 31

ABSTRACT

A study On the Epic Literature in the Sino-Korean Textbooks of High School: focused on the composition of unit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reading materials

Lee Dae-Yeon
Adviser : Kwon Soon-yoel Litt.D.
Major :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 sun Universit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laces its focus on establishing a student-centered system of a curriculum and providing various selective courses to meet each student's needs based on the individual ability, interest, aptitude and future career. Although Sino-Korean textbooks have undergone a considerabl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new curriculum in their structure and composition, there is a certain limit to maximizing the effect of learning only with the exoteric change.

The method to boost the effect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a

substantial change in contents. The compilation of the textbooks which is interesting and easy to understand can be an option. This paper will attempt to go over the proportion of epic literature in each Sino-Korean textbook and propose a desirable composition of model units on the basis of the belief that epic literature is one of the most eligible candidates which can provoke interest in students.

There are five textbooks which contain 1～2 epic literary works, three textbooks of 3～4 epics, and three textbooks of 5~8 epics.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the epics contained between the textbooks. Seven out of eleven, which is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number of the books, contain less than three epic works. If you assume that each textbook consists of 35～40 sub-units, 7～8 of epic literature, approximately 20% of the sub-un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book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history and philosophy.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epic in the units of the Sino-Korean textbook as well.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extbook contain one unit which covers only epic literature and other unit contain an epic along with other genres of literary works. However,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extra caution is needed not to put additional pressure of learning on students by dealing with the epic works in the light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which can be more or less serious and formal.

Education on Chinese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hould be focused on the appreciation of the literary work even though the knowledge on the Chinese characters and expressions

is prerequisite. The sub-units need to be composed emphasizing on the appreciation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writer's life and the background history of the time when the work was written, so that the students can better understand the work.

Why do you study ancient literary works in classical Chinese and teach students the works? Because you want them to understand the thoughts and sentiments of our ancestors through the works and find a guide into tomorrow by taking lessons from them. To fulfill the goal, it is necessary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suggestion of composing the textbooks with more works of epic literature and examine thoroughly the selection process to choose epic literature which is significant in educational perspectives and interesting enough to make students attracted.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한국은 역대로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중국에서 수입된 한자로 문자생활을 해왔다. 과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국가간 교류는 빈번하지 않았지만 한자라는 공용 문자의 사용이 국가간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용한 문자는 같지만 확실히 다른 생활, 사상, 감정을 영위하는 별개의 국가이며 그 각각의 개성은 독특한 문학을 만들어 왔다. 한 민족의 문학이란 그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정신문화가 이른바 민족성이라 일컬어지는 한 민족 고유의 개성을 창조해 내고 그것이 그 민족의 문학에 자연스럽게 발현된다.[1] 한문교과서의 문학작품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작품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한문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들은 선조들의 사상이 드러나 있고,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니게 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敎授·學習과정에서 교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학습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기본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고[2] 국민교육에 미치

1) 전성경, 「한국한문학과 중국문학의 공통성 고찰」, 『亞細亞文化硏究』 제8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pp.101～103.

2) 박기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의 내용분석 연구-수록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p.83.

는 영향이 매우 커서 원칙적으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교과서의 성격때문에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완벽한 교과서, 그리고 보다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제시된 지문과 단원구성을 교과서별로 비교하여 바람직한 구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한문교과서의 모든 영역을 검토하지는 못한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서사문학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서사문학에 주목을 한 이유는 서사문학 작품들은 옛날 이야기이거나 소설이기 때문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이 익히 알려져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학습효과도 뛰어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같은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수필이나 기행문 그리고 각종 詩話나 古文작품과 비교할 때, 서사문학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의 동기부여가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사문학은 즐거움을 주고 상상력 및 창의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읽음으로써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기길 기대하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서사문학이 주는 재미와 교육적 기능들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大別되는 제7차 교육과정도 부합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체제이기 때문에 한문교과가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지루한 교과라는 인식이 각인된다면 한문교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단원의 선택은 중요한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작품들을 선택하되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미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격이 반영되어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편찬'이라는 방침에 의해 한문교과서는 외관과 체제에서 상당한 변신을 하였다. 큼직해진 지면과 색감 있는 다양한 삽화, 낱말 맞추기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측면이 많다.[3] 그런데 이러한 외적변화만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미있고 쉬운 학습단원의 편성이다. 여기에 이야기로서 흥미를 가진 서사문학이 가장 부합된다 생각하여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 서사문학에 관한 내용, 즉 교과서별 서사문학의 비중 그리고 단원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첫 해인 2002년을 전후로 한 시점부터 제7차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산문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명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문소설을 분석하였는데 「李生窺墻傳」, 「許生傳」, 『九雲夢』, 「騎牛翁」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한문소설 수록작품과 비교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한문소설들에 대해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4]

김은영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에서 소설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설교육의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한문소설이 길이가 길어 全文을 싣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교사가 소설작품을 수업할 때 작품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아야 하며 본문의 앞뒤를 번역하여 싣는 방법을 제안하고 역할론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전과의 대조를 통하여 교과서 지문의 오류를 검토하였다.[5]

---

3) 한예원, 『漢文敎育論-반성과 전망-』, 문자향, 2006, p.36.
4) 임명숙, 「한국 한문소설의 분석과 지도방안-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5) 김은영, 「제7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한문교과 소설교육의 효율적 지도방안 연구」, 동

임완혁은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한문과목이 재량활동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저마다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차별화하는 지도가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6차와 7차 교과서에 많이 실린「春夜宴桃李園序」의 학습목표와 평가문항 등을 비교하였다. 학습 분량이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약 30% 줄었음을 말하고 교과서 편찬 지침을 수용해야하는 상황에서 名文의 학습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교과서보다는 제7차 교육과정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6]

이지원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산문을 중심으로 산문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문 교과서의 산문 작품을 원문과 비교하고 10종 교과서에 수록된 산문을 文・史・哲 중에서 역사류 산문과 사상류 산문으로 분류하고 또 문체의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문작품의 원전을 중국 작품과 우리나라 작품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오류와 문제점을 밝혔다.[7]

송병렬은 한문과에서의 한문소설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문소설은 산문의 한 양식으로 파악하여 교육 과정상에 한문소설 교육에 대한 학습요소와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고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한문소설 교육의 표준적인 방향, 즉 한문소설은 全文을 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번역문이나 요약문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작품의 전체를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징

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6) 임완혁,「제7차 敎育課程에 따른 漢文 敎科書에서의 文學敎育-散文, 小說을 중심으로」,『한문교육연구』제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7) 이지원,「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산문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나 서사문법 등 한문소설의 전통적인 장르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교수·학습내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8)]

이러한 선행연구 중 임명숙과 김은영은 한문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지도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주목하였고 이지원은 산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교과서 내용을 문학, 사학, 철학, 그리고 문체별로 분류하여 교과서의 수록현황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임완혁은 名文중심의 산문과 한문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비교를 통하여 달라진 교육내용을 살피면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과 위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송병렬은 한문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국어과의 소설 교육에 관한 학습내용과 비교하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연구대상을 한문소설로 한정한 경우 지도방안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상에서 문학 교육에 관한 부분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구대상을 산문으로 삼는 경우를 보면 교과서 수록현황에 관한 연구와 교과서 지문의 원본대조 작업으로 이루어져서 교과서 단원구성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서사문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설화와 한문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서사문학이 다른 문학작품과 동일하게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단원과 소단원의 구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교과서 구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향

8) 송병렬, 「한문소설 교육의 문제와 방안」, 『한문교육연구』 제2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교육용 기초한자를 숙지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난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자와 한자어는 여러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9] 그런데 한자와 한자어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문장이나 작품속에서 보게 된다면 난해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사문학 작품을 선정함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타 다른 문학 작품들과 비교할 때 동일한 교육적 효과를 지니며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면 한문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견지하면서 본고에서는 서사문학 중에서 설화와 한문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서사문학의 개념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한문과의 목표 중 서사문학을 교육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목표를 살펴보겠다.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서사문학 연구에 앞서 서사문학의 개념을 살펴보는 일은 필요하다. 사실 문학에서 서사문학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넓게는 운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문이 해당되기 때문에 국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문학 분류체계 중에서 조동일의 4분법설에 근거하여 서사문학의 범주를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분류하고자 한다. 서사문학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으면 서사문학과 여타의 산문 문학이 구별이 되지 않게 된다. 한편 교육과정에 명시된 서사문학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는 작업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주요한 변별기준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 제

9)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 분석법, 조어 분석법, 언어 활용법, 색출법, 비교 학습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한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p.57.

시된 지문이 적절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앞장에서 이루어진 서사문학의 범주를 토대로 교과서에 어떤 서사문학 작품이 실려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10종이고 한문고전 교과서는 1종이다. 교과서마다 편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 선정에 편찬자들의 의도가 반영될 것은 분명하다. 교과서는 집필자에 의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작품들로 구성되는데 교과서마다 서사문학을 다루는 비중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서사문학이 학생들에게 학습의 흥미를 제공하고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별로 비중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교과서의 비중을 살펴보아 교과서 내 서사문학 비중의 적정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교과서별로 서사문학 단원들끼리 대단원으로 묶여 문학교육으로서 장르가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르의 작품과 묶여 대단원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보아 바람직한 대단원의 구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대단원이 장르별로 묶일 수도 있고 주제별로 묶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서사문학으로 대단원이 설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보다 바람직한 단원 구성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서사문학의 소단원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일한 서사문학 작품이 여러 교과서에 실렸을 때 본문으로 제시된 지문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작품 분량이 많아 작품의 일부만을 지문으로 제시할 경우 제시된 지문이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부분인지, 해당 지문이 작품의 교육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인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문의 제시 이외에도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해 학습 자료를 수록하여 놓았는지 각 교과서들을 비교해보고, 각 교과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바람직한 구성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자료가 되는 제 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10종과 한문고전 1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1>의 '약칭' 란의 표기 내용으로 출판사 名을 대신한다.

한문 번호	출판사명	저자명	약칭
①	교학사	김경수 · 김봉숙 · 김성룡 · 김평호	<교학>
②	금성출판사	이병혁 · 이영우 · 최상익 · 허남욱	<금성>
③	도서출판 대학서림	강경모 · 류기영 · 백광호 · 신표섭 · 이병주 · 이윤찬 · 이태희 · 허시봉	<대학>
④	대한교과서	김동규 · 안재철 · 원용식	<대한>
⑤	두산	이명학 · 임완혁 · 장호성 · 현상곤	<두산>
⑥	새한교과서	김동환 · 유성준 · 유형구	<새한>
⑦	정진출판사	곽치영 · 이수철	<정진>
⑧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상홍 · 원창희 · 이강렬 · 최창구	<중앙>
⑨	지학사	박갑수 · 이상진 · 최상근	<지학>
⑩	천재교육	신영주 · 이희목 · 진재교 · 최돈욱	<천재>
한문고전 번호	출판사명	저자명	약칭
①	금성출판사	이영우 · 최상익 · 허남욱	<한문고전>

<표 1> 고등학교 한문교과서10種 및 한문고전 교과서 1種 목록

Ⅱ. 서사문학의 개념과 교육 목표

1. 서사문학의 개념

서사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서사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국문학[10]에서 연구된 문학 장르에서 서사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조동일의 4분법설에서 서사문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서사문학 작품을 분류할 것이다.

서사문학의 본질은 교과서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 기본 요건은 '서술자'와 '일정한 사건을 갖춘 이야기' 이며, '어떤 인물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겪어 나아가는 일련의 사건'을 내용으로 삼는다.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이 서사를 이루는 기본요소이며, 이야기를 구성하고 인물과 환경을 묘사해 나아가는 작가의 허구적 상상적 개입이 서사문학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서사문학의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설명은 서구문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정의와 비슷하다. 서구문학에서 '이야기'는 '주제로 모아지는 연속적 사건을 줄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실제 또는 허구일 수 있으며 줄거리는 과정・대상・행위가 구조화하여 이루어진다.[11] 설명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사의 본질은 결국 사건이나 일의 경

---

10) 국문학을 우리 문학 또는 우리 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우리의 작가가 그의 생활감정이나 정서 및 세계인식을 우리의 언어와 문자로써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서사문학은 한자로 표기된 문학임을 감안할 때에 한문문학을 국문학의 범위에 넣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19세기까지 한자로 표기된 문학도 한글로 표기된 문학과 동등하게 국문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金承璨・金埈五・李炳赫・鄭尙圶 외, 『韓國文學槪論』, 三知院, 1995, pp.14-20, 참조.

11) 史在東 編, 『韓國敍事文學史의 硏究Ⅰ』, 中央文化社, 1995, pp.50~51.

과를 표현하는 것인데 사건이나 일은 주체인 인물을 필요로 하며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줄거리를 이루도록 하는 서술자를 필요로 한다.

서사의 상황은 話者와 聽者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화자가 청중에게 사건을 이야기 한다.' 이것이 서사의 기본 상황이다. 화자는 서술하는 사실과는 상대적 위치에 있어서 서정문학에서와 같은 양자(화자와 청자)간의 융합은 있을 수 없다. 이 때 화자가 하는 서사는 平明하며 통상은 과거시제로 한다. 서술하는 사건이 지나간 일이요, 불변적인 일이므로 이미 확정된 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예시도 같은 태도로부터 나온다. 화자는 감격한 상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야기 한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화자는 거기 벌어지는 세계의 한 장면의 充實相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서사문학은 세계를 開示한다. 서정문학의 경우 세계는 화자의 감동 속에 용해되어 버리는데 서사문학의 서술은 세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시종 서술할 세계의 성격에 맞추어서 행해진다. 그러므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형태학적 設問만이 서사문학에서 제기되는 장르 문제를 가름할 수 있게 한다.[12] 서사문학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구성요소를 이루어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다.

서사문학의 본질만 가지고 서사문학을 정의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국문학에서 문학 장르를 분류할 때 등장하는 서사문학의 개념을 보충하여 살피고자 한다. 문학의 분류는 입장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적 형식이든 내적 형식이든 문학작품들 사이의 유사성이 문학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국문학의 경우 주로 외적 형식에 따라 장르를 2분법·3분법·4분법 등의 큰 갈래와 작은 갈래들로 분류하고 있다. 2분법설은 국문학을 크게 두 가

12) 史在東 編, 앞의 책, pp.24~25.

지로 나눈 것인데 이병기가 『國文學槪論』에서 국문학을 크게 '詩歌'와 '散文'으로 나누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가'는 운율이 있고 整形이며 표현인데 반하여, '산문'은 운율이 없고 散形이며 서술이다. 그의 분류기준은 리듬의 유무인 외적형식이었다. 그는 '시가'를 잡가・향가・시조・별곡체・가사・악장・극가 등 역사적 장르로 나누고, '산문'을 설화・소설・내간・일기・기행・잡문 등으로 나누어 여기에 다시 여러 하위부류들을 들었다. 3분법설은 국문학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인데 장덕순은 서구의 장르이론을 바탕으로 국문학의 분류체계를 내세웠다. 그는 『국문학통론』에서 장르류를 '서정적 양식'・'서사적 양식'・'극적 양식'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고대가요・향가・고려가요・시조・가사・잡가 등 역사적 장르들을 '서정적 양식'에, 설화・소설・수필 등을 '서사적 양식'에, 가면극・인형극・창극을 '극적 양식'에 수렴시켰다. 그는 외적 형식보다 인간정신과 같은 내적 형식을 분류 기준으로 했다. 내적 형식을 기준으로 삼을 때 명사대신 서정적・서사적・극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였고 가사를 '주관적 서정적 가사'와 '객관적 가사'로 양분하고 전자를 '서정적 양식'에, 후자를 일기・내간・잡필과 더불어 수필에 묶어 '서사적 양식'에 귀속시켰다. 4분법설은 네 가지로 나눈 것인데 조동일은 '서정'・'서사'・'희곡'의 전통적 3분법에 '교술'[13]을 추가하여 4분법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서정'은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이고, '교술'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에 의한 자아의 세계화이고, '서사'는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에 의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고 '희곡'은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여기서 자아와 세계가 각각 '작품내적 자아', '작품외적 자아', '작품내적 세계', '작품외적 세계'의 4단위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13) '敎述'의 '敎'는 알려서 주장한다는 뜻이며, '述'은 어떤 사실이나 체험을 서술한다는 뜻이다. '述'은 어떤 사실이나 체험을 서술한다는 뜻이다. "일정한 사실을 기술해서 전달 또는 주장하는 것"이 교술이다. 이것은 독일문예학의 4분법 중 교훈문학과 일치한다. 金承璨・金埈五・李炳赫・鄭尙卄 외, 『韓國文學槪論』, 三知院, 1995, p.29.

서 그의 장르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抒情’에 서정민요・고대가요・향가・고려속요・시조・잡가・신체시・현대시를, ‘敎述’에서 교술민요・경기체가・악장・가사・창가・가전체・몽유록・수필・서간・일기・비평을, ‘敍事’에서는 서사민요・서사무가・판소리・신화・전설・민담・소설을, ‘戱曲’에서 가면극・인형극 ・창극・신파극・현대극으로 분류하였다.[14]

이처럼 갈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2분법으로 나누든 3분법, 4분법으로 나누든 장르 구분의 개념이나 기준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보아도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장르들이 확연히 분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혼합적[15]인 작품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문학에서 연구된 문학 분류체계는 2분법설, 3분법설, 4분법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조동일의 ‘서정’, ‘교술’, ‘서사’, ‘희곡’의 4분법설의 분류에 의거해서[16] 서사문학의 하위부류인 설화와 한문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기본 자료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사문학의 운문으로 된 형태인 서사민요, 서사무가, 판소리 등은 논외로 한다.

---

14) 金承璨・金埈五・李炳赫・鄭尙圶 외, 위의 책, pp.23~31.

15) 서정·교술·서사·희곡의 상관관계가 그것들의 특징을 구체화한 개별갈래들의 흥망성쇠로 구현되어 문학사가 전개된다. 그러나 개별갈래의 특징이 모든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작품은 소속 갈래의 공통적인 특징을 그 나름대로 구체화하면서 부분적인 일탈을 보일 수도 있다. 시조에 교술적 성향을 지닌 것들도 있고 서정적 소설이나 서사적 희곡도 이따금 발견된다. ‘교술적’, ‘서정적’, ‘서사적’ 등의 관형사는 특정작품의 이차적 성향을 지칭하는데 쓰인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2005, p.30.

16) 조동일의 4분법설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4분법설이 서사의 본질과 가깝고, 서사를 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분법설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서사보다 큰 개념이고 3분법설에는 서사라는 장르가 있으나 劇이 한문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현대문학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2분법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서정과 서사로 나눌 수는 있으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산문으로 된 문학은 모두 서사문학이 되어 버린다.

2. 교육과정에 명시된 서사문학 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서사문학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려면 먼저 교육과정 해설서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한문과의 일반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언어생활에서 바르게 읽고 쓰기
②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 배양
③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의 확립
④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와 한자 문화권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결국 한문교과서 내에서의 서사문학 교육도 이러한 목표에 궁극적으로 부합해야한다. 여기에서 서사문학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주로 ②와 ③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서사문학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 역	내 용	
한 문	한문 익히기	· 산문을 읽고 풀이하기 ·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의 내용 알기 ·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 풀이하기
	한시 익히기	·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한문 활용하기	· 격언 · 속담, 명언 · 명구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기	·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이해 증진하기

<표 2> 한문과 한문영역 내용 체계표

<표 2>는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제시한 한문 교육의 세 영역 한자, 한자어, 한문 중 한문영역의 교육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한문교과의 '한문영역'을 크게 '산문'과 '시'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사문학 교육에 관한 학습요소와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2, 3학년에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한문고전'에서는 서사문학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내용체계표에는 빠졌지만 영역별 내용설명에서 한문소설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문고전'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 역	내 용	
한 문	한문 익히고 활용하기	· 문장을 읽고 풀이하기 · 문장의 구조와 형식을 알고 활용하기 ·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 <u>문학류 산문을 풀이하고 감상하기</u> · 역사류 산문을 풀이하고 이해하기 · 사상류 산문을 풀이하고 이해하기 · <u>각종 산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u>
	한시 익히고 활용하기	·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알고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기	·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에 기여하기

<표 3> 한문고전 한문영역 내용 체계표

위의 체계표에서 서사문학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문학류 산문을 풀이하고 감상하기'와 '각종 산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라는 항목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문학류 산문을 풀이하고 감상하기'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문'을 '韻文'이나 '騈文'과 구별되는 문장으로 전제하고 '문학류 산문'의 예로 紀行文, 寓話, 傳奇, 擬人體 散文과 각종 詩話, 稗說 등을 꼽았다. '傳奇'의 예로 「雙女墳」, 『三國遺事』에 실린 「金現感虎」, 『大東韻府群玉』에 축약된 상태로 전하는 『殊異傳』의 「首揷石枏」을 들었다. '문학류 산문을 감상하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감상할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류 산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의 한 갈래이다. 즉, 문학이 비문학과 구별되는 점은 형상성에 귀착한다. 문학이 형상을 통해서 생활을 반영한다는 것은 문학이 철학이나 사학과 구별되는 기본 특징이다. (중략) '문학류 산문은 예술적인 산문으로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생활의 한 단면을 묘사하기도 하고 작가의 사상과 감정 및 세계관을 잘 담아내기도 한다. 따라서 서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서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또 논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작가는 산문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17]

좋은 작품이란 시대상을 잘 반영해야 하고 예술적으로 인간의 삶을 표현하며 작가의 사상과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할 때는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작가의 세계관을 살피되 살아온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사상을 파악하는 쪽으로 감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각종 산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항목에 대한 해설에서는 '각종 산문'을 論辨類, 序跋類,

17)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68.

奏議類, 書牘類, 贈序類, 詔令類, 傳狀類, 碑誌類, 雜記類, 箴銘類, 頌讚類, 哀祭類, 辭賦類, 詩歌類, 小說類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한문소설에 해당하는 小說類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小說(소설)'이란 '大說(대설)'이란 말에 대해,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하찮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붙여졌다. 그런데 차츰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화되어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근대 이전에는 소설의 개념이 단일하게 쓰이지 않았다. 오늘날의 소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쓴 경우도 있지만, 야설(野說)이나 잡기(雜記) 등을 두루 칭하기도 했다. '소설'과 동의어로는 '이야기・고담(古談)・패사(稗史)・언패(諺稗: 국문소설)' 등이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말 여초에 전기 소설이 출현하였다. 이조 초에 쓰여진 금오신화는 전기계에 속하는 작품이며, 17세기 이후 대중적인 소설의 성행에 따라서 한문 단편이 발전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한문으로 쓰여진 장편 소설도 나타났다.「최치원전(崔致遠傳)」,「조신전(調信傳)」,「김현감호(金現感虎)」, 김시습(金時習)의「금오신화(金鰲新話)」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문학류 산문'의 하나로 설명한 傳奇와 소설류에서 설명한 전기계 소설은 그 예로 든 작품이 동일하다.「崔致遠傳」과「金現感虎」가 그것인데 이것으로 교육과정에서는 傳奇를 전기소설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金鰲新話』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미 나말여초에 傳奇小說이 출현하였다는 학계 일부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18]

---

18)「調信傳」,「金現感虎」,「首揷石枏」,「崔致遠」 등을 모두 傳奇小說로 보는 견해도 있고「崔致遠」만 소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종래에는 조선전기 金時習의『金鰲新話』를 최초의 한문소설로 봤었다.
나말여초에 傳奇小說이 출현하였다는 주장은 傳奇小說이 說話와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傳奇小說과 설화가 구별되는 특징은 첫째, 傳奇小說은 인물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서술된다. 둘째, 시간의 본질에 있어 전기소설은 성장과 변화, 형성으로 표상된다. 셋째, 주인공의 미적 특질에 있어서도 구분되는데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섬세하고 내면적이며 고독한 인간상이 중요한 미적 특질을 이룬다. 넷째, 창작의 목적의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다섯째, 문체에 있어서도 구

이상에서 서사문학 교육의 목표를 한문전적의 독해능력 신장과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으로 들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작품이어야 하며 작가의 사상과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소단원의 구성도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작가의 생애와 관련하여 감상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별되는데 전기소설은 분위기를 중시하는 감각적이며 화려한 문어체의 한문이다.
이러한 전기소설과 설화와의 장르적 차이를 바탕으로 나말여초의 「崔致遠」을 검토해 봤을 때 우선 인물의 외면 뿐만 아니라 내면세계까지 그림으로써 인물의 성격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주인공의 미적 특질에 있어서도 주인공 최치원의 상황이 고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문체면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수식적이며 서정적인 점을 들어 설화일 수 없고 전기소설로 보았다.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p.56~65 참조.

Ⅲ. 교과서별 서사문학 비중과 단원구성 비교

1. 서사문학의 비중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담는 것이 교과서이다.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10종이고 한문고전은 1종이다. 교과서는 편찬자의 관점과 교육관이 다분히 반영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품선정에서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같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10종과 한문고전 교과서 1종을 대상으로 전체 산문영역에서 서사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교학>에서 나온 한문교과서를 살펴보면 <교학>은 12개의 대단원과 29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3개의 대단원과 5개의 소단원이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교학 (24단원)	3. 不如近隣	10. 借鷄騎還	25. 白頭大幹	15. 弘益人間
	4. 瓜田不納履	11. 舍人從蛙	26. 見危致命	16. 吾君耳
	5. 附耳之言	20. 好好先生傳	27.東明王篇序	17. 野鼠婚
	6. 指鹿爲馬	21. 自畵像贊	28. 論語抄	18. 李生窺墻傳
	7. 守株待兎	22. 妙香山小記	29. 莊子抄	19. 九雲夢
	8. 狐假虎威	23. 物之數量		
	9. 兄弟投金	24. 醫山問答		
계	19			5
비율				22.5%

<표 4> <교학>의 서사문학 비중

두 번째 <금성>에서 나온 한문교과서를 살펴보면 <금성>은 10개의 대단원과 40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3개의 대단원과 12개의 소단원이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금성 (28단원)	9. 삶의 바른자세 (名言·名句)	22. 刻舟求劍	32. 용기 있게 산 사람들 (韓國獨立運動之血史)	25. 단군이 세운 나라
	10. 책읽는 즐거움(名言·名句)	23. 兄弟投金	33. 한글	
	11. 부모님의 은혜(名言·名句)	24. 孟母斷機	34. 화약과 거북선	
	12. 더불어 사는 삶(名言·名句)	26. 삶의 터전 (擇里志)	35. 花郞	
	13. 甘呑苦吐 (俗談)	27. 살아가는 모습 (東國歲時記)	36.大東輿地圖	
	14. 同價紅裳 (俗談)	28.춤과 노래를 즐기며(嘉俳)	37. 마음을 닦자(大學,中庸)	
	15. 金科玉條 (俗談)	29. 통일을 이룩한 사람(海東名將傳)	38. 조화가 으뜸(孔子)	
	16. 他山之石 (俗談)	30.사심을 버린 사람들(崔瑩將軍)	39.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孟子)	
	21. 狐假虎威	31.민생에 애쓴 사람들(北學議)	40. 형벌로 다스려야 (韓非子)	
계	27			1
비율				3.6%

<표 5> <금성>의 서사문학 비중

세 번째로 <대학>은 1부 입문편과 2부 기초편, 3부 심화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문편에서 한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기초편에서는 2개

의 대단원과 고사성어와 속담 그리고 격언에 관한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편과 심화편을 합쳐 12개의 대단원과 30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1개의 대단원과 4개의 소단원이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대학 (26단원)	1. 鷄肋	9. 孔子	19. 詩를 짓는 아들에게 (與猶堂全書)	1. 檀君王儉
	2. 守株待兎	10. 孟子	22. 동아시아의 수학(九章算術)	2. 吾君驢耳
	3. 俗談	11.老子와 莊子	23. 신라의 과학기술(萬佛山)	3. 孝女知恩
	4. 格言	13. 黃眞伊	24. 地球는 둥글다(推測錄)	12. 목숨과 바꾼 사랑 (海東奇談)
	4.고구려의 영광 (廣開土大王陵碑)	16. 全琫準		14. 劍女
	5.平等의 꿈 (高麗史)	17. 토지와 농민(與猶堂全書)		15. 紅桃이야기
	6.백성을 위하여 (訓民正音)	18. 민족이 잘 사는 길 (北學議)		25. 首揷石枏
				26. 李生窺墻傳
계	18			8
비율				30.7%

<표 6> <대학>의 서사문학 비중

네 번째로 <대한>은 11개의 대단원과 39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2개의 대단원과 10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대한 (29단원)	6. 언행의 등불 (俗談)	21. 英祖의 揀擇	31. 率居	14. 野鼠婚
	7. 삶의 지표 (格言)	22. 백성을 위한 정치 (李之菡)	32. 百結先生	30.檀君王儉
	8. 迎鼓・東盟	23. 목숨을 구한 지혜 (宋史)	33.성현의 말씀 (孟子)	39. 春香傳
	9. 嘉俳	24. 백유의 눈물	34.베어가지 않는 나무(莊子)	
	10. 婚禮	25. 이항복의 스승 공경	35. 선과 사랑 (荀子,墨子)	
	11. 車戰・石戰	26. 민영환의 우국 충정	36. 春夜宴桃李園序	
	12. 꿈풀이	27. 大東輿地圖	37. 養竹記	
	13. 借鷄騎還	28. 訓民正音	38. 雜說	
	15.공당으로 문답함(練藜室記述)	29. 京城과 宮城		
계	26			3
비율				11.5%

<표 7> <대한>의 서사문학 비중

다섯 번째로 <두산>은 10개의 대단원과 39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2개의 대단원과 7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두산 (32단원)	4. 俗談(1)	14. 信義	29. 眼鏡	21. 檀君
	5. 俗談(2)	15. 正直	30. 地圓說	32. 짝잃은 앵무새
	6. 格言	16. 高潔	31.빛의 굴절현상	33. 당나귀 귀

	7. 登龍門	22. 韓半島	35. 崔瑩	34. 토끼의 간
	8. 矛盾	23. 白頭에서 漢拏까지	35. 金時習	
	9. 五十步百步	24. 金剛山	37. 惟政	
	10. 狐假虎威	25. 성현의 말씀	38. 의원 趙光一	
	11. 咸興差使	26. 삶의 지혜	39. 의로운 여종	
	12. 孝誠	27. 학문과 사색		
	13. 友愛	28. 그림자		
계	28			4
비율				12.5%

<표 8> <두산>의 서사문학 비중

여섯 번째로 <새한>은 12개의 대단원과 35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3개의 대단원과 9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새한 (26단원)	7. 冽上方言	14. 矛盾	24. 論語	27. 射琴匣
	8. 耳談續纂	15. 守株待兎	25. 孟子	28. 延烏郎細烏女
	9. 旬五志	16. 狐假虎威	26. 莊子	29. 龜兎之說
	10. 말	17. 舍人從蛙	33. 雜說	30. 孝女知恩
	11. 修身	18. 借鷄騎還	34. 師說	31. 許生傳
	12. 함께하는 사회	19. 兄弟投金	35. 春夜宴桃李園序	32. 騎牛翁
	13. 刻舟求劍	20. 不言長短		
계	20			6
비율				23%

<표 9> <새한>의 서사문학 비중

일곱 번째로 <정진>은 11개의 대단원과 38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2개의 대단원과 7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정진 (31단원)	Ⅱ-1. 俗談	Ⅳ-4. 佩鈴自戒	Ⅷ-3. 老子·莊子	Ⅶ-1.弘益人間
	Ⅱ-2. 格言	Ⅵ-1. 겨레의 땅	Ⅷ-4. 諸子百家	Ⅹ-1.溫達傳
	Ⅱ-3. 故事成語	Ⅵ-2. 祭天	Ⅸ-1. 創造情神	Ⅹ-2.許生傳
	Ⅲ-1. 五十步百步	Ⅵ-3. 설날	Ⅸ-2. 自警文	
	Ⅲ-2. 背水之陣	Ⅵ-4. 風俗畫	Ⅸ-3. 樂書孤存	
	Ⅲ-3. 狐假虎威	Ⅶ-2. 周鄭交惡	Ⅺ-1. 朋黨論	
	Ⅲ-4. 猫項懸鈴	Ⅶ-3. 刺客列傳	Ⅺ-2. 鏡說	
	Ⅳ-1. 兄弟投金	Ⅶ-4. 渤海考序	Ⅺ-3. 赤壁賦	
	Ⅳ-2. 借鷄騎還	Ⅷ-1. 孔子		
	Ⅳ-3. 斷機之敎	Ⅷ-2. 孟子		
계	28			3
비율				9.7%

<표 10> <정진>의 서사문학 비중

여덟 번째로 <중앙>은 13개의 대단원과 40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2개의 대단원과 7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중앙 (33단원)	5. 格言	19. 盡買腐肉	31. 金炳淵	22. 檀君
	6. 俗談	20. 兄弟投金	32. 借鷄騎還	
	7. 登龍門	21. 實錄	33. 狐假虎威	
	8. 矛盾	23. 白頭大幹	34. 辯鬪	
	9. 刻舟求劍	24. 訓民正音	35. 通商論	

	10. 孝親	25. 嘉俳	36. 閭田論	
	11. 齊家	26. 張保皐	37. 卜居論	
	12. 鄕約	27. 姜邯贊	38. 漁父辭	
	16. 學問	28. 論介	39. 鏡說	
	17. 讀書	29. 百結先生	40. 愛惡箴竝序	
	18. 哲學	30. 崔北		
계			32	1
비율				3.1%

<표 11> <중앙>의 서사문학 비중

아홉 번째로 <지학>은 11개의 대단원과 37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2개의 대단원과 8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지학 (29단원)	5. 故事成語(1)	14. 英祖의 揀擇	27. 萬德	29.燕烏郞細烏女
	6. 故事成語(2)	15. 御製序文	28. 金聖基	30. 志鬼說話
	7.故事成語(3)	16. 돌싸움을 한 까닭(芝峯類說)	32. 종달새와 오리 (芝峯類說)	31. 許生傳
	8. 俗談(1)	17. 玄琴	33.최무선의 고민	
	9. 俗談(2)	22. 大學·中庸	34. 생활을 윤택하게(北學議)	
	10. 格言	23. 論語·孟子	35. 도로 네 눈을 감아라(燕巖集)	
	11. 小學	24. 退溪·栗谷	36. 雜說)	
	12. 진정한 보배(蒙求)	25. 燕巖·茶山	37. 前後赤壁賦	
	13. 그래야 내 마음이편하니(高麗史)	26. 金時習		
계			26	3
비율				10.3%

<표 12> <지학>의 서사문학 비중

열 번째로 <천재>는 13개의 대단원과 40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자·한자어 단원과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2개의 대단원과 8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천재 (32단원)	4. 俗談과 格言	15. 猪喫瀑布	32. 歲寒圖	29. 金堤上
	5. 短文	16. 僧換押吏	33. 朋黨論	
	6. 學問	17. 忍辱而待	34. 師說	
	7. 讀書	18. 醫山問答	35. 閭田論	
	8. 勸學文	19. 白頭大幹	36. 錢論	
	9. 季札之劍	20. 六友堂記	37. 通商惠工	
	10. 知音	26. 琴師 金聖器	38. 論語	
	11. 伯兪之孝	27. 崔北傳	39. 諸子	
	12. 鄕約	28. 書·畫·歌	40. 孟子	
	13. 針隱 趙光一	30. 張保皐		
	14. 萬德	31. 錦繡江山		
계	31			1
비율				3.1%

<표 13> <천재>의 서사문학 비중

열한 번째로 <한문고전>은 9개의 대단원과 36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표에는 한시단원을 배제하여 1개의 대단원과 4개의 소단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소단원수)	산 문			서사문학
한문 고전 (32단원)	1. 인간은 귀한 존재	12. 삶과 지혜의 결합(科學器具,活字)	26. 노력한 만큼 얻는다(與猶堂全書)	8.단군의 탄생
	2. 정성을 다하여	13. 한의학의 집대성(東醫寶鑑)	27. 재정이 튼튼해야 (韋庵文稿)	36. 許生傳

	3. 마음을 비우고	14. 지구는 둥글다	28. 군자의 길	
	4. 열 숟가락으로 밥 한 그릇	15. 東明王篇序	29. 仁이란 무엇인가(論語)	
	5. 마음으로 듣는다	16. 이야기꾼의 등장	30. 사람은 선한 존재(孟子)	
	6. 문서를 보내지 않은 까닭(柳成龍)	17. 비평의 탄생	31. 쓸모없는 것의 쓰임(莊子)	
	7. 거위가 삼킨 진주	18. 시와 철학의 만남	32.春夜宴桃李園序	
	9. 우리의 민속 씨름	19. 三別曲의 문학성	33. 漁父辭	
	10. 아름다운 춤	24. 배가 뭍으로 다니면(退溪集)	34. 出師表	
	11. 신묘한 그림	25. 선과 악의 드러남(栗谷集)	35. 鏡說	
계			30	2
비율				6.3%

<표 14> <한문고전>의 서사문학 비중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대학>이 서사문학 작품을 가장 많이 수록하여 서사문학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8작품이 수록되었고 비율은 30.7%였다. <금성>, <중앙>, <천재>가 서사문학 작품을 한 작품씩 수록하고 있어 3%대 비율로 가장 낮았다. 교과서 수록작품이 1~2작품인 교과서는 모두 5種이었고 3~4작품인 경우는 3種, 5~8작품인 경우는 3種이었다. 교과서별로 서사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와 가장 낮은 교과서가 차이가 심하였고 3작품 이하를 실은 교과서가 7種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3회 이상 수록된 작품이 「檀君王儉」, 「吾君驢耳」, 「許生傳」 3작품에 불과하고 한 번 수록된 작품은 12작품에 이른다. 이것은 편찬자의 관점이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교과서 편찬의 원칙이 비교적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과서가 소단원을 평균 35~40단원을 싣는다고 가정할 때 역사나 철학 영역의 산문을 고려하여 전체 소단원

의 20%인 7~8작품 정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서사문학의 대단원 구성

제7차 교육과정의 모든 한문교과서는 대단원을 설정하고 소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단원 설정의 취지를 안내해 주어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소단원에서 학습하여야 할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단원 구성을 살펴보고 비교하여 장·단점을 살피고자 한다.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들은 다른 장르의 작품과 같이 다루었다. 한편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더라도 한문소설을 아예 싣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으며 서사문학으로 대단원을 설정하고 다른 대단원에서도 다른 장르의 작품과 같이 서사문학을 다룬 교과서도 있었다.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한 교과서는 <교학>, <새한>, <지학>으로 3개 교과서이다.

출판사	대단원	작품(출전)
교 학	Ⅶ.옛이야기	15. 弘益人間(三國遺事) 16. 吾君耳(三國遺事) 17. 野鼠婚(旬五志)
	Ⅷ.짧은 이야기	18. 李生窺墻傳(金鰲新話) 19. 九雲夢
새한	Ⅸ. 三國遺事	27. 射琴匣 28. 延烏郎細烏女
	Ⅹ. 三國史記	29. 龜兎之說 30. 孝女知恩

	XI. 漢文小說	31. 許生傳(燕巖集) 32. 騎牛翁(靑邱野談)
지 학	IX.옛이야기의 멋과 재미	29. 해와 달의 정령(三國遺事) 30. 여왕을 사랑한 남자(大東韻府群玉) 31. 그래도 양반(燕巖集)

<표 15> 서사문학을 대단원으로 설정한 교과서

위의 세 교과서는 모두 2쪽을 할애하여 대단원의 첫머리를 구성하고 있고 그 체제는 '단원의 길잡이', '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 목차', 그리고 '소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지학>은 '단원의 길잡이'에서 설화에 대한 개념과 설명을 담고 있고, '소단원 목차'와 '학습할 내용', 그리고 '단원 학습 목표'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설화와 한문 소설의 개념을 알고 감상한다'이다.

<교학>은 '설화'와 '한문소설'으로 두 개의 대단원을 설정하였고 한문소설 대단원은 설화 대단원의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설화에 대한 설명', '소단원의 목차', '소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원 학습 목표'는 없지만 「단군신화」를 4컷 만화로 표현하여 「단군신화」가 건국신화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문소설로 구성된 대단원에서 한문소설과 설화의 차이를 '꾸며 낸 이야기 중에서도 소설의 주인공들은 설화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세계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도전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소설을 읽는 매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한>은 세 개의 대단원과 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단원 첫머리 구성은 '단원의 길잡이', '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 목차'와 '학습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길잡이'에서 각각 『삼국유사』, 『삼국사기』, '소설'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설화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단원 학습 목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한 것은 <교학>과 <지학>과 같지만 대단원의 성

격을 봤을 때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한>은 설화라는 문학 장르로 대단원을 설정하기보단 출전에 따른 분류로 대단원을 설정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설화로 묶인 것이기는 하지만 구성 의도는 다르다. 또 한문소설 단원에서는 '한문 소설을 통해 우리나라 서사문학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자'고 하였는데 설화라는 장르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의 세 교과서는 모두 설화를 학습하고 나서 한문소설을 다루고 있는데 한문교과서에서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구성한 의도를 추측해 보면 문학사적 관점에서 두 장르의 특성과 차이를 학습하고 설화에서 소설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구성은 국어과와 연계가 되어 학습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고 많은 부분을 가르치려다 시간에 쫓겨 부실한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다른 대단원에서도 다른 장르의 작품과 다룬 경우를 살펴보겠다. 출판사로는 <대학>, <두산>, <정진> 등이 있다.

출판사	대단원	작품(출전)
대 학	Ⅰ.설화의 세계	1. 檀君王儉(三國遺事) 2. 吾君驢耳(三國遺事) 3. 孝女知恩(三國史記)
	Ⅴ.여인열전	14. 劍女(雪橋漫錄)
	Ⅵ.우리민족의 역사2	15. 홍도 이야기(於于野談)
	Ⅹ.이야기의 전승과 소설문학의 형성	25. 首挿石枏(大東韻府群玉) 26. 李生窺墻傳(金鰲新話)
두 산	Ⅸ.설화의 세계	32. 짝 잃은 앵무새(三國遺事)

		33. 당나귀귀(三國遺事) 34. 토끼의 간(三國史記)
	Ⅵ.한민족과 국토산하	21. 檀君(東國通鑑)
정 진	Ⅶ. 역사 속의 인생	Ⅶ-1. 弘益人間(三國遺事)
	Ⅹ. 문학의 향기(2)	Ⅹ-1. 溫達傳(三國史記) Ⅹ-2. 許生傳(燕巖集)

<표 16> 서사문학을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다른 대단원에서도 주제별로 다룬 교과서

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형태를 같이하고 있으며 한 작품이나 두 작품 정도가 다른 대단원에 주로 역사관련 산문과 함께 실려 있다. <대학>의 대단원 첫머리는 다른 교과서에 보이는 '단원의 길잡이', '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 목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체제는 없고 다만 해당 대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글을 실어 놓았다. 설화 단원에서는 설화의 특징과 설화가 다른 작품에 끼친 영향[19]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소설단원에서는 소설의 정의와 소설 형식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였다. 서사문학 작품이 다른 장르의 글과 함께 대단원으로 구성된 경우는 「검녀」와 「홍도 이야기」인데 각각 '여인열전'과 '우리민족의 역사2'에 실려 있다. '여인열전'의 단원 첫머리에 단원 구성과 관련하여 '봉건질서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여성의 인권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우리민족의 역사2'에서는 '백성들이 봉건적 통치 체제와 전란속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역사발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갑오농민전쟁을 예로 들었다.

19) 「심청전」은 『삼국유사』 권2의 「거타지」설화 속의 등장인물이 변조되어 나타났고 「효녀지은」에도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설화의 전승은 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말하였는데 황순원의 단편 『차라리 내 목을』은 '김유신과 기녀 천관 사이에 있었던 비극'을 소재로 하였고, 박종화의 소설 『아랑의 정조』는 백제 개루왕 때의 도미의 아내를 소재로 소설화되었음을 말하였다.

<두산>의 단원 첫머리는 앞에서 살펴본 <교학>과 <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원길잡이', '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 목차' 및 '학습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 학습 목표'에 '설화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단군신화」가 '한민족과 국토 산하'라는 대단원에 한민족과 관련된 제재로 실렸다.

<정진>의 단원 첫머리는 '단원 학습 목표', '준비 학습', '학습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진>은 <두산>과 반대로 설화 단원은 없고 소설 단원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단군신화」가 신화 속에 담긴 내용의 역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속의 인생'이란 대단원에 실려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구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섞어 놓은 것인데 설화와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 대단원으로 묶고 주제와 관련하여 몇개의 작품은 다른 대단원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구성은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다뤄 문학 장르의 특징을 학습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대단원에서도 학습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서사문학 작품을 다룰 수 있다. 실제로 11종 교과서 중에서 서사문학 작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도 <대학>이다.

다음은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엮지 않고 다른 장르의 작품과 같이 다룬 경우를 살펴보겠다. 출판사는 <금성>, <중앙>, <천재>, <한문고전>등으로 4種이다.

출판사	대단원	작품(출전)
금성	Ⅶ. 진실의 무대	25. 단군이 세운 나라(三國遺事)
중앙	Ⅷ. 민족의 긍지	22. 홍익인간의 이념/檀君(三國遺事)
천재	Ⅹ. 나라를 위하여	29. 신라인 김제상/金提上(三國遺事)
한문고전	Ⅲ. 민족과 민속	8. 단군의 탄생(三國遺事)

<표 17>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지 않은 교과서

<금성>의 대단원 첫머리는 '대단원 열기', '단원 학습 목표', '학습방향과 방법', '들머리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실의 무대'라는 대단원에 우리의 민속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민족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중앙>도 <금성>과 비슷한 취지로 '민족의 긍지'란 대단원에 「단군신화」가 실렸다. <천재>는 우리나라가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침략을 막아내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애국심을 배우자는 취지로 '나라를 위하여'란 대단원에 「金堤上」을 실었다.

위에서 살펴본 교과서는 모두 하나의 서사문학 작품이 실려 서사문학 비중이 가장 낮고 한문소설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단원의 성격에 따라 다른 작품과 같이 다뤄지니 비중이 낮게 되고, 소설은 작품의 전체를 감상해야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한문소설이 분량이 많아 全文을 게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듯 싶다. 이러한 한계를 일부 교과서에서는 번역문을 함께 제시함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작품과 여러 종류의 산문을 접할 수는 있겠으나 서사문학의 비중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한문수업이 딱딱하고 난해하게 여겨지는 것을 극복하고자 동일한 교육적 효과에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서사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서사문학의 비중이 낮아지는 쪽보다는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대단원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살펴본 '서사문학으로 별도의 대단원을 구성하고 동시에 다른 대단원에서도 다른 장르의 작품과 같이 다룬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것을 경계하여 소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장르

적 개념만 설명하고 소설단원에서도 '소설의 주인공은 설화의 주인공과 달리 섬세하고 내면적이며 세계에 대해 깊이 고뇌한다는 점' 정도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신에 특히 소설 같은 경우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그들의 갈등과 고민을 간접체험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와 역사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는 문학 감상에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Ⅳ. 소단원에 제시된 지문 및 학습 자료의 구성 비교

이 장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서사문학 작품을 소단원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작품이 여러 교과서에 실린 경우 제시된 본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위한 수록된 자료 등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檀君神話」(교학, 금성, 대학, 대한, 두산, 정진, 중앙, 한문고전)

「檀君神話」는 <교학>, <금성>, <대학>, <대한>, <두산>, <정진>, <중앙>, <한문고전>에 수록되어 있어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진 작품이다. 교과서별로 수록된 본문은 다음과 같다.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어늘 父知子意하여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天符印三個하여 遣往理之하니라. 雄이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하니 謂之神市요 是謂桓雄天王也라. <교학>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어늘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天符印三個하여 遣往理之하니라.謂之神市요 是謂桓雄天王也라(중략) 號曰檀君王儉이라. <금성>

昔有桓因庶子桓雄하여 數意天下하고 貪求人世하니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 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天符印三箇하여 遣往理之하니라. 雄이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하니 謂之神市요 是謂桓雄天王也라. <대학>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하니 父知子意하여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天符印三箇하여 遣往理之하니 雄이 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하니 謂之神市라 是謂桓雄天王也라.(중략) 生子하니 號曰壇君王儉이라 <대한>

古記에云하되 昔에有桓因庶子桓雄이 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어늘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天符印三箇하여 遣往理之하니라. 雄이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하니 謂之神市요 是謂桓雄天王也라 將風伯雨師雲師하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하니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여 在世理化하니라. <정진>

古記에 云하되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어늘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天符印三箇하여 遣往理之하니라. 雄이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하니 謂之神市요 是謂桓雄天王也라 (中略) 熊女者는 無與爲婚이러니 雄이 乃假化而婚之라 孕生子하니 號曰壇君王儉이라 <중앙>

時有一熊一虎가 同穴而居하며 常祈于神雄하여 願化爲人이라. 時에 神이 遣靈艾一炷와 蒜二十枚曰 "'爾輩食之하고 不見日光百日하면 便得人形이라"하니라. 熊虎得而食之러니 忌三七日에 熊得女身이나 虎不能忌而不得人身이라. 熊女者無與爲婚이라 故로 每於壇樹下에 呪願有孕하니 雄乃假化而婚之하여 孕生子하니 號曰壇君王儉이라. <한문고전>

<교학>에서는 "檀君神話를 민족 최초의 建國神話이다. 이 단원을 통해 우리 민족 신화에 나타난 상징체계를 이해해 보자"라고 하고 '학습목표'로 세 가지를 들었다. '①한자 '可以', '謂之'의 쓰임 ②사동형 ③弘益人間의 의미'가 그것이다. '본문의 이해' 코너에서는 '風伯・雨師・雲師가 등장한 것은 순조로운 농사를 위해서 바람・구름・비를 잘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농경사회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여 놓았다. 그리고 학습목표

③을 충족시킬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神檀樹에 대한 설명과 단군 이름의 유래 등을 짧게 소개하고 「연오랑세오녀」의 번역문이 감상 자료로 실려 있다. 단원명이 '홍익인간'이고 학습목표에도 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미진한 부분이다.

소단원의 제목은 '弘益人間'이지만 건국신화라는 측면에서 교육할 때는 본문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단군왕검의 이야기까지 나와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자 교육법의 기본정신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교육이 이루어 질 수는 있겠지만 최초의 건국신화와 관련지어 교육할 때는 조선의 건국까지, 즉 단군왕검까지 본문이 제시되든 번역문을 추가 제시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과 <정진>에서는 각각 '檀君王儉'과 '弘益人間'으로 소단원에 실렸다. 본문의 내용은 거의 같았으나 약간 차이가 있었다. <정진>에서는 <교학>보다 제시된 본문이 조금 길어졌고 본문 뒤의 이야기를 번역문으로 실어놓은 점이 주목할 만 하였다. 그러나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까지였고 환웅과 곰이 결합해 단군을 낳았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특히 <정진>은 '역사 속의 인생'이란 대단원 속에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작품의 감상과 이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보충학습'에서는 역사와 관련된 한자어 학습을 하고 있으며 '한자 이야기'에서는 '年號'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대한>에서는 소단원제목이 '檀君王儉'이지만 소단원이 '弘益人間'으로 붙여진 <교학>과 <정진>보다 홍익인간에 관한 설명이 평가항목의 읽을 거리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 <교학>과 <대한>과 <정진>에서는 모두 고조선의 건국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건국신화와 관련되어 교육할 때는 본문에서 다루든 번역문을 실어 본문 외에서 다루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설화의 세계'라는 대단원의 첫 번째로 '檀君王儉'을 싣

고 있다. 소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두 쪽을 할애하여 설화의 배경과 영향을 설명하였는데 소단원의 학습목표가 설정되지는 않은 점이 다른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더 알아보기'에서 '주몽신화'를 실었고 '참고 자료'에서 '신화를 보는 시각과 단군신화'를 수록하는 등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는 구성이 돋보였다. 그리고 지문의 제시도 본문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에서는 학습주안점으로 '단군의 산문익히기', '단군에 담긴 전통 가치관 알기'로 제시하였다. 이를 충족시킬 자료로 '본문이해의 길잡이'에서 「檀君神話」의 내용과 교육적 가치를 설명해 놓았는데[20] 건국신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민족의 근원을 나타내어 주체성과 긍지를 갖는 면에 더 치중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계승의식'을 수록하여 '고려'가 '고구려'의 영광을 계승하고 '조선'은 '고조선'의 영광을 계승한다는 정신을 國號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가치관 교육에 중점을 두어 단원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산>에서도 단군에 관한 소단원을 싣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과서들은 출전이 『三國遺事』이지만 <두산>은 『東國通鑑』인 점과 본문도 타교과서에 비해 짧은 점이 구별된다. <두산>에 수록된 본문은 다음과 같다.

> 東方에 初無君長하더니 有神人이 降于太白山檀木下어늘 國人이 立爲君하니 是爲檀君이라 國號를 朝鮮이라 하고 初都平壤이라가 後徙都白岳하니라.

위의 본문과 무궁화에 관련된 두 개의 본문으로 '檀君'이라는 소단원이

---

20) 단군신화에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녀 온 이념들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天帝인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국가의 존재 근거가 신성한 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아 天孫의 긍지를 가지게 한다. 환인이 이곳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펴기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보았다는 사사리은 한국인의 삶의 터전이 신성함을 말해 준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한국인의 본래적 삶의 계율이 된다. 김상홍 外, 『고등학교 한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7, p.134.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타교과서와 구별되는 점이다. '단군'과 '무궁화'가 우리민족과 관련된 제재로 판단하여 같이 다룬 것으로 보이나 '단군신화'만으로 학습할 요소들이 많은데도 굳이 무궁화에 관한 본문을 학습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든다. 또 학습 자료로 '쉬엄쉬엄'에서 김동리의 수필 '무궁화'를 실었고, '생각 키우기'에서 신라 김알지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 작품의 감상과 이해에 관련된 자료는 없고 다만 始祖神話를 수록하여 신화에는 건국신화 외에도 시조신화도 있다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제시된 본문이 짧고 출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문에 제시된 지문으로 우리 민족의 탄생을 살펴 볼 수는 있겠지만 홍익인간의 이념을 간과하게 된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관이자 이념으로 인간존중,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타주의 및 평등사상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의 기원을 알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선조의 정신을 알고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까지 교육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문고전>은 7種의 교과서와는 다른 부분을 본문으로 제시하였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어 환웅과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았다는 부분이 그것인데 학습목표로 '신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민족의식에 대하여 생각하기', '복수를 나타내는 한자를 알고 독해에 활용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제시한 참고 자료에는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적 요소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21] 홍익인간에 대한 교육내용

21) 단군을 중심으로 볼 때 熊女의 존재는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는 사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화, 무속과 연결시켜 볼 때 고아시아족(고대로부터 동북아시아에 살았던 원주민으로 샤머니즘을 신봉함)의 존재를 주목하게 된다. 고아시아족의 시조가 곰 숭배 사상을 지니고 있고 그들은 곰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고아시아 족은 곰 숭배와 함께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고의 무당을 지칭하는 텡그리(tengri)와 단군과의 관련성 및 그 기능과 관련된 世界木 관념이 神檀樹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군 신화의 내용을 고아시아 족과 연결시켜 파악할

은 없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檀君神話」에는 민족의 건국 정신이 담겨져 있어 학습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민족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갖게 한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대학>에서처럼 소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사문학으로서 설화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고 제시된 본문 외에 뒷이야기가 번역문으로 실려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개괄하여 건국신화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뿌리를 찾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해하는 데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과 <정진>에서 어구풀이나 한자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대학>과 <중앙>에서 작품 감상에 관한 유익한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단군신화의 해석'과 '역사 계승 의식', '주몽신화', '신화를 보는 시각과 단군신화' 등이 그것이다.

「吾君驢耳」(교학, 대학, 두산)

「吾君驢耳」는 <교학>과 <대학>과 <두산>에 실려 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와 같다.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미다스 왕이 아폴로 신의 미움을 사서 당나귀 귀처럼 되었는데 오직 이발사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인데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와 우리 『三國遺事』에 나오는 경문왕의 이야기가 같다는 점은 학생들로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거기다 '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진실은 권력자의 강압에 의해서 덮어질 수 있는

수 있다. 최상익 外, 『고등학교 한문고전』, (주)금성출판사, 2007, p.48.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비밀이 밝혀진다는 점을 교육한다면 충분히 교육적이라 생각한다.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新羅第四十八代景文大)王이 登位하니 王耳忽長如驢耳러라 王后及宮人은 皆未知어늘 喩幞頭匠一人이 知之라 然이나 生平不向人說이러니 其人將死에 入道林寺竹林中無人處하여 向竹唱云 : 吾君耳는 如驢耳라 其後風吹則竹聲云 : 吾君耳는 如驢耳라 王惡之하여 乃伐竹而植山茱萸러니 風吹則但聲云 : 吾君耳長이라.

<교학>, <대학>, <두산>이 모두 본문에 실린 내용은 같은데 <대학>만이 전설로 이 단원을 접근하고 있으며[22] 경문왕의 대한 설명이 약간 덧붙여 있다. 그리고 제시된 본문 앞의 이야기를 번역하여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야기가 연관성이 없어서 어색하다.[23] 작품의 감상에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건을 수록하여 본문에서 함께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산>은 '생각 키우기'에서 그리스의 '미다스 왕' 이야기를 실었고 <대학>은 '더 알아보기'에서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같은 전설로 실어 놓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두산>의 '쉬엄쉬엄'에서 幞頭匠의 갈등과 고민을 자신의 체험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의 경우일 때 적어 보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문학교육의 방법으로 유익하다.

---

22) 전설은 흔히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설명에는 대부분 그 설명이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증거물들을 같이 제시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 이야기나 특이한 지명, 명소 등이 이것이다. 하지만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려오는 동안 이야기가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당대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더 중요하다. 전설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화와 민담과는 차이점이 있다. 신표섭 外, 『고등학교 한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7, p.50.

23) 「吾君驢耳」는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데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문왕이 화랑으로 왕이 되기까지 이야기, 둘째, 왕이 되고나서 寢所에 뱀이 몰려든 이야기, 셋째, 귀가 당나귀처럼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대학>에서는 둘째부분을 번역문을 요약하여 싣고 셋째부분을 원문으로 실었다.

「吾君驢耳」는 작품의 이해를 위한 자료제시도 좋지만 그보다는 주제학습을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서 '전설'에 대한 설명과 '선덕여왕의 이야기'의 번역문을 실어 놓았지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보충학습'이나 '평가' 등 단원 구성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설에 대한 설명보다 주제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두산>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쉬엄쉬엄'에서 복두장의 갈등과 고민을 자신의 체험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의 경우일 때 적어 보도록 하는 등 주제학습면에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대학>과 대비된다. 그리고 <대학>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산수유나무를 참고자료로 설명하였는데 그보다 산수유를 사진으로 제시한다면 산수유로 인하여 작품이 더 오래 연상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이다.[24)]

「토끼의 간」(두산, 새한)

「토끼의 간」은 <두산>과 <새한>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두산>의 본문은 다른 소단원의 작품이 보통 한 페이지에 실린 것을 감안하면 분량이 매우 많다. 11種 교과서를 통틀어 가장 긴 본문일 듯싶다. <두산>에 실린 본문은 다음과 같다.

> 昔에 東海龍女가 病心한대 醫言: "得兎肝合藥이면 則可療也라." 然이나 海中無免하니 不奈之何라 有一龜가 白龍王言: "吾能得之라"하고 遂登陸하여 見兎言: "海中有一島한대 淸泉白石과 茂林佳菓에 寒暑不能到하고 鷹隼不能侵하니 爾若得至면 可以安居無患하리라"하고 因負免背上하여 游行二三里許라가 龜顧謂兎曰:

24) <대학>에서 산수유 나무를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수, 높이 3m 정도 자라며 잎은 달걀 모양, 열매는 한약재로 쓴다고 설명해 놓았는데 층층나무과는 무엇이며 낙엽수는 무엇이며 더 어렵게 설명한 경우이니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今龍女가 被病한대 須兎肝爲藥이라 故로 不憚勞하고 負爾來耳라” 兎曰: “噫라 吾神明之後라 能出五藏하여 洗而納之라 日者에 小覺心煩하여 遂出肝心洗之하여 暫置巖石之底한대 聞爾甘言徑來라 肝尙在彼하니 何不廻歸取肝이리요 則汝得所求요 吾雖無肝이라도 尙活이니 豈不兩相宜哉리요” 龜信之而還하여 才上岸에 兎脫入草中하여 謂龜曰: “愚哉汝也여 豈有無肝而生者乎아” 龜憫默而退러라.

이에 비해 <새한>은 위의 밑줄 친 부분만 본문에 실려 있고 본문 외의 내용을 번역문으로 함께 실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새한>은 ‘학습 목표’를 ‘우화’, ‘반어형’, ‘환경위기’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화’에 대한 ‘학습 목표’를 충족시킬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 마당’에서 위기에 처한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국한문 혼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에 관한 내용이나 참고자료는 없다. 이에 비해 <두산>은 ‘귀토지설의 의미’와 ‘설화의 분류’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귀토지설’의 배경에 관한 읽을거리와 설화의 분류 및 특징을 표로 제시한 점이 구별된다. ‘귀토지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초점을 맞춰 학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의 이야기이다. <대학>에서는 설화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龜兎之說’이 근원설화가 되어 판소리, 고대소설 그리고 신소설에까지 변천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용도 흥미롭지만 문학사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작품이다.

<대학>에서는 ‘재치 있는 토끼와 우직한 거북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보자’하였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토끼가 지혜롭기 보다는 五臟을 넣었다 뺐다 한다는 말을 믿은 거북이가 어리석은 것이라 여겨지며 특별히 거북이가 우직하다는 면을 찾아 볼 수 없다. 글의 주제를 토끼의 재치보다는 이 글이 실리게 된 배경에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25]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자기 의견을 표

현하게 하거나 글쓰기 훈련을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두산>의 '쉬엄쉬엄'에서 다루는 것처럼 토끼를 놓치고 그냥 돌아간 후 거북이는 어떻게 되었고, 토끼는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빠져나올지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꾸며보는 것도 문학 한 교육의 방법이 될 것이다.

「孝女知恩」(대학, 새한)

「孝女知恩」은 <대학>, <새한>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三國史記』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한 처녀가 매우 가난하였지만 홀어머니께 헌신적인 효성을 다했다는 내용이다. 孝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로 오늘날 당면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 즉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효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학습하면서 청소년기에 건전한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교과서에 실린 본문은 다음과 같다.

> 日久不勝困苦하고 就富家請賣身爲婢하여 得米十餘石하고 窮日行役於其家라 暮則作食歸養之하여 如是三四日하니 其母謂女子曰: "向 食疏而甘이러니 今則食雖好라도 味不如昔이요 而肝心若以刀刃刺之者는 是何意耶아" 女子以實告之하니 母

25) 신라 선덕왕 때 백제가 쳐들어와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였다. 이를 복수하기 위해 김춘추는 고구려에 가 군대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첩자라는 오해를 받았다. 또 고구려 왕은 신라가 차지한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 주지 않으면 보내 주지 않겠다며 김춘추를 가두었다. 김춘추가 고구려 왕의 총애를 받는 선도해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청하자 선도해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춘추가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깨달아 고구려 왕에게 땅을 돌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풀려났다.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풀려나 국경을 넘어서자 전송하는 사람에게 "나는 단지 군사를 요청하였던 것인데 왕은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토지를 구하니 이것은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일은 아니다. 대왕에게 약속을 한 것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다. 이명학 外, 『고등학교 한문』, (주)두산, 2007, p.179.

曰: “以我故使爾爲婢하니 不如死之速也라.”

밑줄 친 부분은 <새한>에 실린 본문이다. <대학>은 孝宗郞에 의해 왕에까지 알려져 왕이 곡식을 내리고 ‘孝養坊’이라는 방을 붙이는 데까지 번역문을 제시하였으나 <새한>은 뒷이야기를 실어 놓지 않아 서로 차이가 있었다. <새한>의 학습목표는 ‘효의 의미’, ‘비교형 문장’, ‘노인문제’이며 읽을거리에 노인문제에 관해 국한문혼용으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새한>은 설화로서 대단원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문학 장르의 측면과 작품 감상에 관한 교과서 구성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울마당’에 경조사에 쓰이는 한자어를 배우고 실제로 봉투 및 속지를 써보게 하여 생활 속에서의 교육이 되도록 한 점은 유익하다 생각된다.

<대학>에서는 설화 중에서 민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설화와 소설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였다.[26] 주로 문학의 장르적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 소단원이 구성되었다.

바람직한 구성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번역문으로 제시가 된다면 해피엔딩의 결말까지 나타나는 것이 좋겠다. 설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설화에서 소설로 가는 단계를 의식하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줄거리를 구조화하고 시대 배경을 이해하며 오늘날의 사회 현실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경조사에 쓰이는 한자어를 익히고 실제 써보는 생활교육과 효도에 관련된 成語 교육[27],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경험담을 발표해 보는 것도 바람직

26) 설화의 한 형태인 「孝女知恩」은 서사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소설에 비해 이야기의 구조나 묘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 (中略) 설화가 기록문학으로 전환되면서 소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孝女知恩」이야기도 그 길이나 구조면에서 복잡성과 치밀함을 보이기 시작한다. 나말여초로 오면서 이러한 설화들은 몇몇 작가들에 의해 글로 기록이 되면서 구전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구조도 구전설화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신표섭 外,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2007, p.58~59.

27) 예를 들면 昏定晨省, 反哺之孝, 風樹之嘆 등을 들 수 있다.

할 것이다.

「延烏郎細烏女」(새한, 지학)

「延烏郎細烏女」는 태양이동설화로 불려 지며 고대 한·일간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일본의 고대 문헌에 실린 신화와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 迎日君의 유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이나 그 지역을 방문했던 학생들에겐 먼저 반가움과 신선함을 느끼게 해 학습효과도 클 것이다. 두 교과서에 실린 본문 내용은 「延烏郎細烏女」를 반으로 가른다고 할 때 앞부분은 <지학>에, 뒷부분은 <새한>에 실려 있다. 교과서에 실린 본문은 다음과 같다.

> 東海濱에 有延烏郎細烏女하여 夫婦而居러니 一日에 延烏歸海採藻할새 忽有一巖이 負歸日本이라 國人이 見之曰 "此非常人也라"하고 乃立爲王하다 細烏怪夫不來하여 歸尋之라가 見夫脫鞋하고 亦上其巖이러니 巖이 亦負歸如前이라 其國人이 驚訝하여 奏獻於王하니 夫婦相會하여 立爲貴妃하다 是時 新羅日月無光이라. <지학>

> 是時에 新羅日月無光하니 日者奏云에 日月之精이 降在我國하더니 今去日本하여 故致斯怪니이다 王遣使來二人하니 延烏曰 我到此國은 天使然也니 今何歸乎리오 雖然이나 朕之妃가 有所織細綃니 以此로 祭天 可矣라 仍賜其綃하다. <새한>

<새한>의 본문은 '신라에 태양과 달이 빛을 잃자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니 왕이 왕비가 직접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지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본문 외 내용을 번역문으로 같이 실었다. '학습목표'로 '설화', '사동형 문

장', '독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화의 감상에 관한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학습목표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였다. 민족의 이동설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장면에 착안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28] 그리고 '迎日縣'이 나온다고 해서 독도의 지명에 관한 읽을거리를 수록해 놓은 것은 연관성이 적다.

<지학>은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뒷이야기는 생략하였다. '학습목표'를 '설화작품 감상', '於의 쓰임을 알기'로 제시하였다. <지학>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에 들어가는 '烏'의 의미를 설명하여 태양신화의 원형이라고 설명을 해놓았다.[29]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을 일식과 월식의 현상으로 파악하여 월식과 일식을 설명해 놓은 점이 주목할 만 하였다.

「연오랑세오녀」는 별로 길지 않은 작품이다. 본문 외에 작품내용을 번역문을 실어 전체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迎日縣'의 유래가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연오랑세오녀」와 비슷한 일본의 설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태양과 달이 빛을 잃은 표현을 과학적 시각으로 보아 월식과 일식에 관해 생각하게 하고 모둠별로 고대인의 시각에서 일식과 월식에 관한 신문기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李生窺墻傳」(교학, 대학)

「李生窺墻傳」은 <교학>, <대학>에 수록되었는데 <교학>과 <대학>에

28) 강현모, 「연오랑세오녀 설화일고」, 『한양어문』 제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6, p.32.
29) 까마귀는 고대 중국의 신화나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다. 옛 사람들은 까마귀가 태양속에 살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설화는 단순히 부부의 이동설화라기보다는 고대태양신화의 한 원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박갑수 外, 『고등학교 한문』, (주)지학사, 2007, p.154.

실려 있는 본문이 서로 다른 부분이 실려 있다. 두 교과서에 실린 본문은 다음과 같다.

會月上東山하여 花影在地하니 淸香可愛라 生意謂已入仙境이라 心雖竊喜나 而情密事秘하여 毛髮盡立이라 回顧左右하니 女已在花裏하여 與香兒로 折花相戴하고 見生微笑하며 口占二句하여 先唱曰 "桃李枝間花富貴요 鴛鴦枕上月嬋娟이라" 生이 續吟曰 "他時漏泄春消息이면 風雨無情亦可憐이라" 女變色而言曰 "本欲與君으로 永結歡娛한대 郞은 何言之若是也오 妾雖女類나 心意泰然한대 丈夫意氣로 肯作此語乎아 他日에 閨中事洩하여 親庭責問이라도 妾以身當之하리라.

<대학>

女曰 "李生之壽는 剩有餘紀나 妾은 已載鬼錄하니 不能久視라 若固眷戀人間하야 違犯條令하면 非喩罪我요 兼亦累及於君이라 但妾之遺骨이 散於某處하니 倘若垂恩이면 勿暴風日하게 하소서"하고 相視泣下數行하며 云호대 "李郞은 珍重하소서"하고 言訖에 漸滅하야 了無踪跡이라 生拾骨하야 附葬于親墓傍이러니 旣葬에 生亦以追念之故로 得病數月而卒하니라. <교학>

<교학>의 감상과 관련된 '학습목표'는 '한문 소설의 멋을 느껴보고 한문 문장의 표현을 익혀보자'이다. '본문의 이해'에서 「李生窺墻傳」의 줄거리를 요약해 감상에 도움이 되게 하였으나 시대배경이나 작자인 김시습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순애보로서 작품을 감상하게 하였는데 실제로 본문의 내용도 마지막 이별하면서 최씨가 이생에게 하는 말이어서 말투도 비장하고 슬프며 영원히 헤어지는 최씨의 마음이 저절로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다. 거기다 결말도 얼마 못가 상사병에 걸려 죽게 되니 더욱 애절하게 느껴진다.

<대학>은 소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작품 당시의 결혼풍습을 소개하고 있다. '좋아하는 남녀가 사귀고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나 과거 전통 사회 속에서 부모님이 맺어주는 짝이 아닌, 남녀가 먼저 감정이 통해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었다'고 설명을 하여 먼저 작품을 읽기 전에 시대배경을 설명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게 하였다. 교과서 본문은 「이생규장전」의 초입부분인데 간단하게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지문은 이생과 최씨의 밀회 장면인데 이생은 우유부단하나 최씨는 이와 대조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30]

<대학>에서는 김시습과 『金鰲新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金鰲新話』 나머지 수록 작품인 「萬福寺樗蒲記」, 「醉遊浮碧亭記」,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의 작품 설명까지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교학>은 『금오신화』만 간단히 설명하고[31] 『金鰲新話』의 나머지 네 작품에 대해서는 소개가 없었다. 또 김시습이 「이생규장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작품 감상의 길잡이'에서 임형택의 논문을 발췌하여 실어 놓았다.[32] 이것은 학생들이 소설을 감상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으며 보다 깊은 감상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方外人 김시습과 『金鰲新話』'를 수

---

30) 心雖竊喜나 而 情密事秘하여 毛髮盡立이라 女變色而言曰 "本 欲與君으로 永結歡娛한대 郎은 何言之若是也오 妾雖女類나 心意泰然한대 丈夫 意氣로 肯作此語乎아 他日에 閨中事洩하여 親庭責問이라도 妾以身當之하리라 신표섭 外,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2007, p.192~193.

31) 『금오신화』를 <교학>은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에서 지은 소설. 최초의 한문소설로 알려짐'이라 소개하였고 <대학>은 '조선 전기에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전기체 한문소설집. 여기에는 「이생규장전」을 포함해 총 5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김시습은 이 소설을 통해 평소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과 그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비교적 <대학>이 자세하였다.

32) 이 소설은 중간에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을 수긍하지 않고 현세의 생을 고집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비현실적인 대목이다. 이런 신이한 요소는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부당한 횡포로 인한 생의 단절을 거부하는 현세적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의 투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인간관의 역설적, 낭만적 표현인 것이다. 작가는 인간을 도덕의 구현물로서가 아닌 생의 현실로 파악하였다. 거기에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전제로 되어 있다.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남녀가 서로 연정을 느끼는 것은 인정에 지극히 중요한 일이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성의 신뢰가 사상적 기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의 투쟁과 좌절의 내용에서 비장감을 느끼게 된다. 신표섭 외, 앞의 책, p.194.

록하여 김시습의 삶과 관련하여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학>의 김시습에 대한 설명은 생몰연대와 조선초기의 문인으로 소개를 하여 너무 간략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은 '생몰연대와 號는 梅月堂이며 5세 때에 이미 신동으로 세종에게 인정받았으나 19세 때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켜 단종을 몰아냈다는 말을 듣고 분개, 벼슬살이를 포기하고 중이 되었다. 方外人으로 평생을 살면서 많은 한시와『金鰲新話』를 썼다'고 설명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위의 두 교과서에 제시된 본문이 서로 다르지만 드러나는 주제는 동일하다. 두 교과서의 구성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바람직한 구성은 작자인 김시습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며 가능하면『金鰲新話』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소설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시대배경 및 작자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시습의 삶과 관련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김시습의 삶을 조명해 보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성격을 학습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許生傳」(새한, 정진, 지학, 한문고전)

「許生傳」은 <새한>, <정진>, <지학>, <한문고전>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檀君神話」다음으로 많이 수록되었다.「許生傳」은 박지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4種의 교과서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박지원의 실학사상과 관련하여 감상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4種 교과서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子平生不赴擧하니 讀書何爲오" 許生笑曰 "吾讀書未熟이라" 妻曰 "不有工乎아" 生曰 "工未素學하니 奈何오" 妻曰 "不有商乎아" 生曰 "商無本錢하니 奈何아" 其妻恚且罵曰 "晝夜讀書러니 只學奈何오 不工不商이면 何不盜賊고" 許生掩

卷起曰 “惜乎라 吾讀書를 本期十年호대 今七年矣라”하고 出門而去이어늘 無相識者러라. <새한>

許生이 居墨積洞하니 直抵南山下하면 井上에 有古杏樹하고 柴扉向樹而開에 草屋數間이 不蔽風雨라 然이나 許生이 好讀書하고 妻가 爲人縫刺而糊口라 一日은 妻가 甚飢하여 泣曰 “子가 平生에 不赴擧하니 讀書는 何爲오”하니 許生이 笑曰 “吾讀書未熟이로다” 妻가 曰 “不有工乎잇가” 生이 曰 “工未素學하니 奈何오”한대 妻가 曰 “不有商乎잇가”하니 生이 曰 “商無本錢하니 奈何오”하거늘 其妻가 恚且罵曰 “晝夜로 讀書터니 只學奈何로다 不工不商이면 何不盜賊고” 許生이 掩卷起하여 曰 “惜乎라 吾讀書 本期十年이러니 今七年矣로다”하고 出門而去하니 無相識者라 直之雲從街하여 問市中人曰 “漢陽中誰最富오”하니 有道卞氏者하여 遂訪其家하여 許生이 長揖曰 “吾家貧하여 欲有所小試하니 願從君借萬金하니라 卞氏曰 ”諾다“하고 立與萬金하니 客竟不謝而去하더라.

<정진>

一日에 妻甚飢하여 泣曰“子平生에 不赴擧하니 讀書何爲오” 許生이 笑曰“吾讀書未熟이로다” 妻曰 “不有工乎아” 生曰 “工未素學하니 奈何오”妻曰 “不有商乎아” 生曰 “商無本錢이니 奈何오” 其妻가 恚且罵曰 “晝夜讀書하여 只學奈何오 不工不商이면 何不盜賊고” 許生이 掩卷하고 起曰 “惜乎라 吾讀書에 本期十年이러니 今七年矣로다”하고 出門而去하니 無相識者라 直之雲從街하여 問市中人曰 “漢陽中에 誰最富오”하니 有道卞氏者라. <지학>

許生이 曰 “爾有妻乎아” 群盜曰 “無라” 曰 “爾有田乎아” 群盜笑曰 “有田有妻면 何苦爲盜리오” 許生이 曰 “審若是也면 何不娶妻樹屋하고 買牛耕田하여 生無盜賊之名하고 而居有妻室之樂하며 行無逐捕之患하여 而長享衣食之饒乎아” 群盜曰 “豈不願如此리요 但無錢耳라” 許生이 笑曰 “爾爲盜에 何患無錢고 吾能爲汝辦之하리라 明日에 視海上하면 風旗紅者가 皆錢船也이리니 恣汝取去하라” 許生이 約群盜하고 旣去하니 群盜가 皆笑其狂하더라. <한문고전>

<새한>, <정진>, <지학>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허생이 아내와의

대화 후에 독서를 그만두고 집을 나서는 서두단락을 실었다. <새한>은 아내의 질책을 받고 책을 덮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원문으로 제시하였고 앞부분과 변씨에게 돈을 빌리는 장면까지는 번역문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정진>은 <새한>의 번역문으로 실은 부분까지 다 원문으로 제시하였는데 처음부터 변씨에게 돈을 빌리고 떠난 부분까지이다. <지학>은 아내의 질책을 받고 거리로 나와 변씨를 만나기 전까지를 원문으로 제시하였다. <한문고전>은 허생이 도적들과 만나는 장면을 본문에 실어 나머지 3種 교과서와 제시한 본문이 차이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워 도둑인 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박지원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새한>은 '실학사상', '의문형', '전자화폐'가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작품의 감상과 관련하여 박지원에 관한 설명이나 실학사상, 그리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였고 다만 전자화폐에 대한 읽을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문학 교육의 핵심은 감상에 있음을 감안하면 전자화폐에 대한 소개보다는 작품의 이해와 관련된 구성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정진>은 '실용적 한문체의 감상', '사회 구조와 개혁에 대한 관심'을 '학습목표'로 제시하였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燕巖 朴趾源이 살았던 시대를 설명하여 제시하였다.[33]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본문을 실었고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이어지는 이야기를 요약하여 「許生

33) 18세기 영·정조 시대는 우리나라 사상의 전환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왕조의 장기화에 따른 침체와 부패, 당쟁의 심화로 권력 투쟁이 극에 달했다. 국외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 난의 후유증과 나아가서는 국제 정세의 격변하는 소용돌이에서 온 나라의 중심 지주가 되어 왔던 성리학이 물질 문명을 등에 업은 西學에 침식되는 과정 속에 새로운 사고의 전개와 진보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극심한 민생고의 해결과 과학 문명의 도입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때였다. 이에 따라 성리학이 공리 공론으로 점차 퇴색하고 實事求是·經世致用·利用厚生을 표방한 실학이 대두되었다. 이수철 外, 『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7, p.199.

傳」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에 박지원의 문학관과 文體反正에 대한 읽을거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박지원의 사상과 생애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장치로 유익하다 여겨진다.

<지학>은 '학습목표'로 '「許生傳」의 문학적 가치와 등장인물 이해', '한문소설의 표현 방법 이해', '감탄형 문장의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학>도 <새한>과 별다를 바가 없다. '읽고 생각하기'에서 「許生傳」은 『燕巖集』의 「玉匣夜話』 속에 들어있는 글이라 소개하고 「玉匣夜話」의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34] 이런 자료보단 시대배경이나 박지원의 삶 등 작품의 이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許生傳」의 감상에 관련된 교과서 구성은 <새한>보다는 나았지만 <정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문고전>은 학습목표로 '조선후기 실학사상', '대화체의 한문 문장'을 제시하였다. 본문은 도둑들과의 대화내용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부분은 도적들의 증가하고 사회가 불안정해 지는 원인을 계층간의 부의 불균등으로 보고 그들에게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농민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는 박지원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문고전>은 '작자 및 출전의 이해'에서 박지원과 『熱河日記』에 대하여 소개하고 실학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또 '참고'에서 「許生傳」의 작품세계를 설명하였는데 「許生傳」의 구체적인 감상에 관한 글이 아닌 단순 내용요약에 불과하였고 전체 내용을 4줄로 요약하여 너무 간략하였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비교적 <정진>이 작품의 감상과 관련하여 교과서를 잘 구성하였는데 「許生傳」의 전체적 내용을 요약하고 작품이 쓰여

34) 역관 홍순언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순언이 한 처녀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이 처녀가 은혜에 감격하여 잊지 않고 있었다. 뒤에 중국 고관의 繼室이 되었다. 후에 홍순언이 중국에 가게 되어 집에 초대받아 환대를 받는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 고관의 도움을 받아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주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박갑수 外, 앞의 책, p.162.

진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여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박지원의 문학관과 文體反正에 관한 소개도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박지원의 사상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사회와 비교하여 올바른 현실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중시한 다양한 선택 과목의 개설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는 외형면과 구성면에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외적변화만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미있고 쉬운 학습단원의 편성이다. 여기에 이야기로서 흥미를 가진 서사문학이 가장 부합된다 생각하여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 서사문학에 관한 내용, 즉 교과서별 서사문학의 비중과 단원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교과서 구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서사문학의 개념을 서사의 본질과 4분법설에서 서사의 정의에서 찾아 설명하고 교육과정에 명시된 서사문학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서사의 본질은 '서술자'와 '일정한 사건을 갖춘 이야기'이며 '어떤 인물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겪어 나아가는 일련의 사건'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4분법설에서의 서사는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에 의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로 자아와 세계의 대립구도가 나타난다.

Ⅲ장에서는 교과서별 서사문학의 비중과 대단원 구성을 비교하였다. 교과서 수록작품이 1~2작품인 교과서는 모두 5種이었고 3~4작품인 경우는 3種, 5~8작품인 경우는 3種이었다. 교과서별로 서사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와 가장 낮은 교과서가 차이가 심하였고 3작품 이하를 실은 교과서가 7種으로 절반이상이었다. 교과서가 소단원을 평균 35~40단원을 싣는다고 가정할 때 역사나 철학 영역의 산문을 고려하여 전체 소단원의 20%인 7~8작품 정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과서별로 대단원 구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았는데 첫째,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학>, <새한>, <지학>이었다. 이 경우 문학사적 관점에서 설화와 소설 장르의 특성과 차이를 학습하고 설화에서 소설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 학습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고 많은 것을 가르치려다 부실한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지 않고 주제별로 대단원이 구성된 경우인데 <금성>, <중앙>, <천재>, <한문고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여러 작품과 여러 종류의 산문을 접할 수는 있으나 서사문학의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 셋째, 서사문학을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다른 대단원에서도 다른 장르의 작품과 주제별로 묶일 경우인데 <대학>, <두산>, <정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장르의 특징을 학습하면서 다른 대단원에서도 학습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서사문학 작품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딱딱한 문학 장르적 특징과 문학사의 관점에서 깊이 다뤄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서사문학 작품을 소단원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단군신화」의 경우 <대학>에서처럼 소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사문학으로서 설화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고 제시된 지문 외에 뒷이야기가 번역문으로 실려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감상과 관련하여 건국신화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뿌리를 찾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해하는데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과 <중앙>에 제시된 '단군신화의 해석'과 '역사 계승 의식', '주몽신화', '신화를 보는 시각과 단군신화' 등이 그 예이다. 다른 서사문학 작품들도 번역문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작품의 감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는 내용으로 학습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물론 한자·한자어의 학습과 본문의 독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작품의 감상에 중심을 두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단원의 구성도 작자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살아가는 방식 등을 간접 체험하고 현실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감상에 중점을 두는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문과에서의 문학교육은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작품의 선정에서부터 교과서 구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서가 서사문학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학생들이 딱딱하고 난해하게 여기는 한문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자료

김경수・김봉숙・김성룡・김평호,『고등학교 한문』, 교학사, 2007.

김동규・안재철・원용식,『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 2007.

김동환・유성준・유형구,『고등학교 한문』, 새한교과서, 2007.

김상홍・원창희・이강렬・최창구, 『고등학교 한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7.

박갑수・이상진・최상근,『고등학교 한문』, 지학사, 2007.

신영주・이희목・ 진재교・ 최돈욱,『고등학교 한문』, 천재교육, 2007.

이명학・임완혁・장호성・현상곤,『고등학교 한문』, 두산, 2007.

이병혁・이영우・최상익・허남욱,『고등학교 한문』, 금성출판사, 2007.

이수철・곽치영,『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7.

이영우・최상익・허남욱,『고등학교 한문고전』, 금성출판사, 2007.

허시봉・류기영・백광호・신표섭・이윤찬・이병주・이태희・강경모,『고등학교 한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7.

權文海,『大東韻府群玉』, 影印本, 正陽社, 1950.

金富軾,『三國史記』, 李丙燾 監修, 민족문화추진회, 1982.

一然,『三國遺事』, 李丙燾 監修, 민족문화추진회, 1982.

2. 단행본

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한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金承燦・金俊五・李炳赫・鄭尙圤 외, 『韓國文學槪論』, 三知院, 1995.
閔丙秀, 『韓國漢文學槪論』, 太學社, 1996.
史在東 編, 『韓國敍事文學史의 硏究Ⅰ-Ⅲ』, 中央文化社, 1995.
李丙疇・李鍾燦・金光淳・宋寯鎬・金甲起, 『漢文學史』, 새문사, 200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3』, 지식산업사, 2005.
崔南善 編, 『三國遺事』, 京城三中堂, 1943.
한국문학개론 편찬위원회 編, 『韓國文學槪論』, 혜진서관, 2001.
한예원, 『漢文敎育論 -반성과 전망-』, 문자향, 2004

3. 논문

강현모, 「연오랑세오녀 설화일고」, 『한양어문』 제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6.
김미령, 「서사작품에 나타난 애정모티프의 변화양상과 현실대응 방식」, 『한국언어문학』 제60권, 2007.
김은영, 「제7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한문교과 소설교육의 효율적 지도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정호, 「박지원 소설 「허생전」에 나타난 정치의식」, 『대한정치학회보』, 제14호, 대한정치학회, 2006.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의 내용분석 연구-수록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송병렬, 「한문소설교육의 문제와 방안」, 『한문교육연구』제2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안재철,「현행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한문영역 단원 분석」,『한국학논집』제19호, 근역한문학회, 2001.

윤보라,「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한문교과서 분석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명학,「雪橋漫錄 연구: 한문단편작가 및 작가의식에 따른 일고찰」,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이지원,「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산문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임영숙,「한국 한문소설의 분석과 지도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임완혁,「한문과에서의 문학교육」,『한문교육연구』제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전성경,「한국한문학과 중국문학의 공통성 고찰」,『亞細亞文化硏究』제8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58025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이 대 연 한문: 李 大 淵 영문: Lee Dae Yeon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37-9				
연락처	011 * 9602 * 0115 E-MAIL: airborn@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서사문학에 관한 연구 -단원 구성 및 학습 자료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영문 : A Study On Epic Literature in the Sino-Korean Textbooks of the High School : focused on the composition of unit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reading material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8월 일

저작자: 이 대 연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